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성경: 누가복음 16장 15-17절

Tag: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눅16:15-17)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16:3)

예수님 당시에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많았나 보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친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시고 대답을 잘 한 베드로를 칭찬 하셨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이 곧 진리이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정답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이말 저말 하지만,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가득하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

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똑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다르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도 친중파와 친미파가 첨예하게 나뉘어서 사건마다 해석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현 집권세력은 친중파인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다만, 중국이나 북한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모두 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야욕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한에서 계속해서 친중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북유럽과 비슷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짙어진다. 친미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짙어진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북한은 중국이 될 것이다. 북한을 미국이 차지한다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커져버린다. 이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북쪽과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리송한 임종석씨의 행방)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은 더 복잡했다. 친로마파가 있었고(가장 현실주의자), 제사장파(기득권층, 권력의 기생층), 바리새파(율법학자, 예언자, 부활을 믿는 자; 율법주의자 가장 비현실주의자),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찬탈파(열심당원들; 세상을 뒤엎으려는 자들), 세례요한과 같은 광야파(여기도 분파 많음; 세속을 멀리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자들), 헤롯왕파(가장 세속적이면서 암투를 벌이는 자들)가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혼합지역으로 갈라졌다.

헤롯왕가도 자기들끼리 정권 다툼이 심했고, 정권을 노리는 늑대나 여우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운동을 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셨나? 주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셨다.

그러면 다른 사두개인이나, 로마인이나, 왕당파나, 테러를 일삼는 게릴라들과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들의 정체를 잘 알고는 계셨지만, 결코 그들과 어울리지는 않으셨다. 다만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다만 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닌, 그들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열정을 이용하셨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다.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세속 권력의 왕이시기도 하시다. 정의로운 정권에 관심이 많으시다. 다만 대부분의 정권이 악을 저지른다. 정의로운 정권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정권을 도우신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다. 만약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둔다면 한국에는 소망이 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다. 예수님은 울면서 탄식하셨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눅13:34)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동일하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레짐(체

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구약)가 예언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핵심은 같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해 들어가게 된다. 이 침입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떠밀려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터치고 들어가게 된다. 전통적인 해석은 열심히 믿는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인 해석은 난민이 물밀 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쫓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

즉, 대세에 밀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선점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다. (월남, 탈북 현상)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자들이어서 심지어 김영란법까지 만들어내는 나라다. 규제를 만들고 서류를 그럴듯하게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비리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심하게 마녀사냥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누구에게든 선의를 베푸셨다. 심지어 세리와 창녀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헤롯왕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다.(말을 섞지 않으심. 가장 큰 홀대.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홀대하시기 때문. 왜? 너무 큰 세속적인 죄와 교만과 아집과 무지 때문임.)

오늘 본문 앞 부분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공금횡령)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눅16:9-12)

핵심적인 구절은 11절이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정의로운 재물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재물을 불의한 자의 소유라면 불의한 것이 되고 정의로운 자가 소유하면 정의로운 것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수 있을까? 불의한 재물이지만 내가 사용하든지 관리하든지 할 경우 정의롭게 하라는 뜻이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흠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의한 자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정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도 재물욕심이 있어서이다. 재물이 무슨 죄인가? 정의로운 내가 그것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 것이다.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가난한 네가 부요한 자의 재물에 충성하게 되면, 그의 돈을 흠치지 않게 되며, 그가 비록 네게 푼돈으로 수고비를 주겠지만, 그것에 충성하라는 뜻도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것을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율법주의!

김영란법의 핵심 정신은 결코 댓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천원짜리 한장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10만원 이내에서 주고 받았으니 죄가 아니란

말인가? 결코 그럴수 없다. 댓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정한 것은 죄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살면, 즉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부자보다 더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러면 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